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민주당 전두환불법자금환수특위 최재성 위원장과 강기정 의원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불법재산 즉각 환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장남 전재국에 천문학적 액수 ‘명화 창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천문학적 액수에 해당하는 명화를 보관한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술계 쪽 상당히 많은 사람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첩보”라며 “(경기도) 오산 근처에 천문학적인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화가들이 그린 명화들이 있는 (재국씨의) 수장고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 중에는 명화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990년대부터 재국 씨의 대리인을 행사해온 한모, 전모란 사람이 화랑을 돌아다니며 명화 컬렉

션을 했다는 얘기가 미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찰 집행팀에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불법 자금을 찾기 위한 국민협업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조수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들 카페(cafe.daum.net/dontjeon) 혹은 트위터 계정 @dontjeon에 전두환 씨의 은닉·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제보해달라”며 “전두환 씨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해법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검찰은 전두환씨 불법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신발 한 짝이라도 찾겠다’는 소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 전두환 불법 재산의 흔적을 찾아 모은다면 16년간 직무 유기를 해온 정부당국이 해내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현행 제도의 맹점을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이 어떻게 약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찾아달라. 또, 전두환 불법 자금 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며 “전두환씨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처럼 권력을 이용해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 역시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막무가내’ 박승춘

(보훈처장)

국회 출석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부적절하다” 고집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아낸 박승춘 보훈처장이 20일 “우리 보훈단체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단체에서 민중의례용으로 사용하는 노래를 정부기관에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모든 참석자가 의무적으로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가”라는 민주당 박지영 의원의 질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5·18단체 역시 보훈단체로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보상을 받고,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도 ‘왜 노래 못 부르게 하나요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5·18 기념식에서는 국가에 대한 경례도 했고, 애국가도 했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도 했다. 하지 않은 그러한 특정

단체나 개인을 보훈처에서 규탄을 하든지 반대를 해야지 왜 합법적인 모든 일을 하는데 합창단이 합창하는 것은 뭐고, 제창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처장은 “그것은 의원 개개인이 생각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단체인 보훈단체의 의견을 존중한다. (다들) 보훈단체가 반대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박 의원이 “간접이 한국말을 쓰면 한국말을 못 쓰게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박 처장은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나서 “보훈처장이 지적한 그 단체가 3·1절 기념곡을 부르면 3·1절 기념곡을 못 부르게 할 건가. 그건 이튼이 성립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 국회에 와서 끌어 부스럼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법사위에서 더 이상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법안심의 그만 할 거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해임건의를 하려고 해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방법이 없다”고 하자, 박 처장은 “네, 해임대상이 아니다”며 소리 내어 웃어 또 질책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조롱하듯 웃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박 처장을 꾸짖었다. 특히 박 처장의 거듭된 궤변에 분개한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환의하며 고성이 오갔고 결국 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국민을 물로 보는 인간들

전당을 ‘문화 창작 공장’으로 문화·산업 유기적 결합 모색

‘지원포럼’이 제시한 문화전당 콘텐츠 방안

“창조원에 5대 콘텐츠 관련 기업 입주해야”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 20일 공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공연·전시, 기획 프로그램 등) 방안은 문화와 산업의 유기적인 결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화전당의 문화창조원을 기존 융·복합콘텐츠 ‘창작 지원 기관’에서 ‘창작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바꿔 광주에서 첨단영상·게임·에듀테인먼트, 공예·디자인, 음악 등 5대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중이 담겼다.

◇문화전당 ‘문화R&D 거점·문화광장’ 태어=지원포럼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페스티벌을 핵심 이벤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시아 각국 문화 예술인이 참여, 예술과 과학, 산업을 아우르는 이벤트를 상설화하자는 것이다. ‘문화창조원’에서는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인 창작

레시던시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아시아 문화정보원에서 수집한 문화자원(신화·설화, 의식주 문화)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들어있다. 지원포럼은 특히 문화창조원에 5대 문화콘텐츠(첨단영상·게임·에듀테인먼트, 공예·디자인, 음악)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 광주문화 수도의 창작공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광주 CGI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ACE 페어, CT연구원 등 창의문화산업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로 열린 연구원’을 지향하되, 아시아 문화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함께 노는 유쾌한 라이브러리’, 문화원형 주제별 체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상호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민주평화교류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의 꿈 페스티벌’이 제시됐다. 민주평화 교류원과 연계해 5·18 광장과 아시아문화광장을 주무대로 ‘대동 정신’, ‘시민참여 정신’을 구현하는 대규모 한마당 축제를 치르는 방안이다.

‘아시아예술극장’(대극장·중극장)에서는 365일 아시아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 개념의 ‘난장행사’를 열고, ‘어린이 문화원’은 국제적인 예술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공동개발,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지원포럼은 “어린이 문화원을 창의교육과 놀이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전당 법인 운영은 ‘시가지조’=지원포럼 안건의 하나로 제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금기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호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운영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문화전당) 설립 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조직이 안정된 이후 법인 위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호(광주시의회 의원) 위원은 “문화전당은 공공성 강한 복합문화시설인데도 특별법 개정안은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며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정부의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되고 운영 또한 부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지역사회에서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타당한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할 것”이라며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하는 방안은 문화전당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문화전당 지원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Dream & Smile

2013학년도 제2학기
동신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동신대학교는 사회와 호흡하며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선정	2012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20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졸업생 1천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2009-2011년 3년 연속 취업률 1위	2013 드림 투게더 333 캠페인 전개 하루 37지 감사 1주일 37지 선행 한달 3번 이상 독서
--------------------------	-------------------	-----------------------	--	---

초빙분야 (정년계열 조교수)

정보보안학과 1명(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 스튜어디스학과 2명(항공서비스), 간호학과 3명(임상간호학 2명, 여성건강간호학 1명)

서류제출기간 | 2013년 7월 9일(화)~7월 11일(목) 18:00까지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18:00에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교무처 교무연구팀 (061-330-3024, 3025), 520-714 전라남도 나주시 건제로 185번지(http://www.dsu.ac.kr)